

제 3 과: 요한계시록 7 장

생각해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는 예수님께 헌신하면서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 중 가장 어려웠던 경험은 언제였습니까?

시작기도: 하나님, 우리가 오늘 요한이 보았던 어둡고 무서운 환상들을 공부할 때, 예수님이 주(主)시며, 그가 승리하였고, 이기고 있으며, 또 승리할 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14 만 4000 명

요한계시록 7 장 1-8 절을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여러분은 아마 14 만 4000 이라는 숫자가 최종적으로 구원 받을 성도들의 명 수일 것이라 하고 하는 주장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시간과 장소를 통틀어 14 만 4000 명만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을 얻을 것이라 하는 가설이지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과연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다행히 아닙니다.

툼 라이트의 책을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이제 창조 세계는 땅을 시들게 하고, 바다를 격동시키고, 나무를 뽑아 낼 거센 바람에 의해 정화되어야 하는 것 같다.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다른 상징들처럼, 자연 세계에서 가져온 이런 이미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맹위를 떨치기 시작할 때 온갖 인간사를 관통할 엄청난 동요를 가리킨다고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어 해를 입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특별한 도장을 이마에 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안전할 것이라고 확신해야 한다.

그들이 고난을 피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계시록의 독자들은 대부분(전부는 아니다) 4-8 절에서 이런 식으로 ‘도장’을 받는 사람의 명단이 그 뒤 9-17 절에서 헤아릴 수 없이 엄청난 군중으로 묘사된 사람들과 같다는 데 의견이 일치한다. 5 장의 사자와 어린양에서처럼, 우리는 요한이 숫자—12×12 로 나누어지는 14 만 4000 명—를 듣고, 그 뒤에 헤아릴 수 없이 엄청난 군중을 본다(9 절)는데 주목한다. 이는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1 만 2 천×12)으로 상징적으로 표현된 동일 집단이지만, 실제로 누구도 헤아릴 수 없이 매우 많은 수로 구성되어 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또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이 거대한 군중은 고난을 피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친히 죽음을 통과해 불멸의 물리적 부활 생명으로 나오셨듯이, 그들은 고난을 통과해 반대편으로 안전하게 나왔다.

따라서 우리는 이 14 만 4000 명이 단지 유대인 혈통으로만 구성된다고 추측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요한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가족의 중심으로 남아 있는 유대인을 포함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모든 사람으로 구성된다. 새 예루살렘이서 (열두 사도의 이름이 그 기초에 있는 한편)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이 성문에 새겨져 있었듯이(21:12-14), 여기서 열두 지파는 9-17 절의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군중과 대비되는 유대 민족을 가리키지 않는다. 이는 특히 14-17 절의 거대한 군중에 대한 묘사가 메시아를 따르는 유대인 제자가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늘 그렇듯, 오히려 요한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풍부한 상징을 사용해, 혈통과 관계없이 메시아를 통해 구원받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이들을 표시한다 (70-71).

여섯 번째 봉인과 일곱 번째 봉인을 때는 사이의 휴지(休止) 상태에서 부각되는 현재 본문의 내용이 확증하는 사실이 있다. 즉 결국 악이 완전히, 또 최종적으로 타도되기 전에 최절정에 이르도록 허용되더라도, 하나님은 이 과정이 참하나님의 백성의 궁극적인 구원에 해를 입히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는 점이다. 유다의 사자를 중심으로 재정의된 이 참백성들은 표시를 받을 것이다. 그들 주변의 사건들은 분명 두렵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호 아래 두셨다고 확신하며 안심할 수 있다 (72).

함께 토론해 볼 주제:

요한은 당시의 핍박을 받으며 인내하는 교회들에게, 또 미래의 고통받을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서신 곳곳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고난을 받을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이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왜 우리는 종종 우리가 삶 속에서 고통받고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는 것 같습니까?
2. 왜 고통과 고난은 우리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것 같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9-17 절을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툼 라이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환상은 4-8 절에서 요한이 14 만 4000 명의 명단을 ‘들은’ 뒤에 ‘보는’(9 절) 것이다. 형식상 이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 12×12×1000 이고, 실제적인 면에서는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군중이다(도시 광장을 메운 거대 군중에 대한 신문 기사의 추산을 생각해 보라. 그때 군중이 몇백 혹은 몇천 명 증가하면, 계산 요원들은 슬쩍 미소를 지으며 포기한다). 승리와 순결을 나타내는 흰옷을 입은 이 군중은 승리를 축하하는 또 다른 상징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고,

열정을 억누를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양께 기쁨과 찬양, 감사의 합성을 외친다. 그들이 승리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10 절의 단어 ‘구원’은 문자적으로 ‘구출’을 의미한다. 그러나 구약성경에서 이 단어는 종종 ‘구출을 이루어 준 승리’를 뜻하는 것 같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찬양의 외침은 선하고, 고귀하고, 강력하고, 지혜로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구원받은 거대한 군중이 기쁨으로 인정하는 12 절까지 이어진다. 전문 용어로 이것이 진정한 유일신론의 면모다. 곧 세상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신다는 공허하고 메마른 고백이 아니라, 모든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리낌 없는 찬양과 외침이다(74).

그런데 이것은 그 이상이다. 이 대목에서 요한은 더 먼 미래,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언뜻 보기 때문이다. 여기에 아직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거기에 있지 않지만, 최후의 도성에는 성전이 없을 것이다(21:22). 그러니 계시록에서 (또 기독교 사상 일반에서) 자주 그렇듯이, 현재와 미래는 여러 가지 엇갈리는 방식으로 중첩되어 맞물리고, 또 이 사람들—요한이 간절하게 *여러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곧 에베소에서 혹은 서머나에서 혹은 버가모에서 혹은 어디에서든 고난을 겪을 이 사람들—은 마지막 도성의 복 중의 일부를 이미 경험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폭풍우로부터, 또 배고픔과 목마름으로부터 보호하실 것이다(요 6:35 에서 예수님이 군중에게 하신 것과 똑같은 약속). 또 역할이 놀랍게 반전되며 어린양이 목자로 변할 것인데, 여기에는 요한복음 10 장(‘선한 목자’)의 왕의 역할과 사실 시편 23 편의 하나님의 역할(자기 백성을 생수가 흐르는 시내로 인도하는 목자이신 하나님)이 전제되어 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가운데(21:4),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내실 것이다.” 이 약속에 담긴 친밀감은 계시록 곳곳에 자리한 하나님의 전체 비전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준다. 그렇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훼손하고 이웃의 삶을 가련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당하게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그 마음이 자비로 충만하신 하나님이 보좌에서 내려와 친히 모든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는 것이 가장 그분다운 행동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이란 단어를 들을 때 즉각 매정한 하늘의 관료나 난폭한 전상의 악당을 생각하지 않고 이런 하나님을 숙고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은 우리가 악몽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참된 날의 실체를 받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길 중 하나다(75-76).

함께 토론해 볼 주제:

요한계시록 7 장 9-10 절에서 요한이 보았던 환상은 모든 인종, 언어, 민족과 국가들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복음 사역에 늘 소망이 되어져 왔습니다.

1. 이 환상을 생각나게 하는 예배의 현장에 가 본 경험이 있습니까?

2. 여러분이 좋아하는 예배의 방식이나 스타일이 있습니까? 혹시 그 선호하는 예배의 방식이나 스타일이 이러한 비전을 가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3. 어떻게 우리는 우리 캠퍼스, 교회, 기숙사 공동체, 또 개개인이 계속 이러한 비전을 꿈꾸도록 도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는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1. 여러분이 이렇게 ‘씻김’ 받고자 하는 슬픔과 고통은 무엇입니까?
2.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바꾸어 놓겠습니까?

마침기도:

예수님, 우리가 당신을 다양한 언어와 방식으로, 때로는 조용하게, 때로는 크게, 때로는 가만히, 때로는 힘을 다해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예배 문화들을 경험하며, 서로에게 배움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가 더욱 풍성하게 되어짐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만의 예배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방식도 존중하며 격려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모든 방언과 모든 민족, 또 모든 나라가 다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눈물을 씻겨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날을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